손짓으로 전하는 찡한 감동

광주문진위 문화바우처, 연극 등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 통역

'손짓으로 전하는 감동.'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바우처를 운영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수화 통역 연극을 진행했었다. 극단 허방의 작품인 5·18 연극 '불꽃놀이'에 청각장애인 30여명을 초청했고, 수화통역사 김창호·김지영씨가 '손으로' 대사를 전달했다.

광주문진위는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수화 통역 연극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007년 진행됐던 극단 '허방'의 '불꽃놀이' 수화 통역 공연 모습.

수화통역센터서 도움

당시 공연장을 찾았던 장애인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부분이었던 터라, 처음 접하는 연기에 신기해 하기는 했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극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공연 내내 통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배우들은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일반 관객들도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지만 연극을 관람하는 데 큰 제약을 받지는 않았었다.

문진위는 2008년에는 우제길미술관과 시각장애인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일회성에 그쳐 아쉬웠다. 문진위는 8월부터 타 계층에 비해 여건상 공연·전시 관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중이다.

그 첫번째가 수화 통역 연극 프로그램이다. 문진위는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2~22일까지 극단 크리에이

'검사와 여선생' 수화로

티브 드라마가 씨디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상영하면서 연극배우 윤희철·노희설씨가 변사로 출연, 재미있게 작품을 이끌어가는 공연이다. 트로트 가수가 출연해 막간 공연을 진행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20일 오전 11시 20분 광산구문화예술회관에서 컬러그림자극 '기린과 돼지'와 코믹 교육인형극 '치카치카 호랑이'를 공연한다.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게 1인 5만원 한도내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음반과 도서 지원 혜택이 추가됐다.

광주의 경우 올 사업비는 3억4600만원이며 7월말까지 49개 프로그램에 7300명의 회원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회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뮤지컬 '몬데크리스토', 전시 '신나는 뽀로로 놀이체험전'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등 다채롭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공연 작품을

공연단체 적극 동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수화 통역이 함께 하는 작품을 섭외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극단과 기획사의 경우 일반관객들의 관람과 배우들의 연기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선뜻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문진위 정혜영씨는 "청각·시각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지원이 힘든 대상이라는 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일반관객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공연단체와 기획사들이 적극 동참해 9월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문의 062-670-57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9일 광주 동구 금남로 충장서림을 찾은 독자들이 '김대중 자서전' 특별코너에서 자서전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대중 자서전' 광주서 인기 폭발

판매·주문 폭주 일부선 물량 동나 … 서점들 수량 확보 비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추모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과 정치역정을 담은 '김대중 자서전'(전 2권·삼인출판사 펴냄)이 지역 서점가에도 돌풍을 몰고오고 있다.

특히, 5만5000원이라는 만만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와 주문이 늘면서 지역 서점들의 판매 수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 충장서림에 따르면 초판 발행 이후 하루 20여 질씩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으며 지난주(8월1일~7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특별코너를 만든 충장서림은 "하루에 적게는 10질에서 많게는 30질까지 나가고 있다"며 "문의와 주문이 쇄도해 출판사 측에 추가 주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단체로 주문하는 등 수요도 늘고 있어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 영풍문고 유·스퀘어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풍문고에 따르면 판매 일주일 만에 확보해 놓은 200질이 모두 팔렸다. 영풍문고측은 주문 물량이 도착하는 오는 12일에나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문고 측은 "자서전 출간 당시 책을 낱개로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주문량 확보가 어려워 질(세트)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5만원대 고가의 책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출판사 측은 자서전 구매자 대부분이 김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50대 전후 나이대로 고가에도 소장가치를 높게 사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김대중 자서전'은 예스 24, 교보문고 등 주요 인터넷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현재 2~3위를 기록 중이다.

한편, '백범 김구 평전' '안중근 평전' 등을 써온 평전 전문작가 김삼웅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한 '김대중 평전'(전 2권·시대의창 펴냄)도 서점에 나와 동반 인기를 얻고 있다.

김씨의 평전은 2, 30대 무명시절 김 전 대통령이 '인물계' '사상계' 등에 기고한 글을 발굴하는 등 40년간 수집한 자료에 인터뷰로 살을 붙인 전기 형식의 평전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자·기호 통한 자연과 인간의 교감

한국화가 장세관씨 개인전

11~17일 서울 라이트 갤러리

철학적 의미가 담긴 단아한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 한국화가 장세관씨가 오는 11~17일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라이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장씨는 문자와 기호를 통해 사물을 형상화하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선보인다.

다양한 색을 사용해 묵이 가진 단조로움에서 탈피했고, 과감한 사물 묘사가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오늘의 지역작가전,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광주 고려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광주사생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725-0039.

'자연율'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관 나들이 참가자 모집

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오는 15일 서울 미술관 나들이를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답사팀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로댕전'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문명전-그리스의 신과 인간'을 관람하게 되며 조선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단원 김홍도의 회화가 전시되고 있는 삼성 리움미술관도 둘러볼 예정이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회원과 어린이는 7만원, 비회원 7만 5000원이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674-656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외수 네티즌 선정 올해 '한국 대표 작가'

이외수

김영하

'젊은작가'는 김영하

작가 이외수씨가 네티즌이 뽑은 올해 '한국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지난달 9~31일 '제7회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외수씨가 4만3360명의 투표 참가자 중 1만3041표(15.7%, 복수응답 가능)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외뿔' '하악하악' '장외인간' '청춘불패' '아불류 시불류' 등의 베스트셀러를 냈다. 2위는 신경숙(14.6%), 3위는 고은(9.8%) 작가가 선정됐으며 김훈(9.5%), 이문열(9.4%) 작가가 뒤를 이었다.

이번 투표는 박경리·조정래·박완서·황석영·조세희·공지영 등 역대 선정작가와 작고 작가를 제외하고 이뤄졌다.

올해 '한국의 젊은 작가' 부문에서는 김영하 작가가 9.4%로 1위를 차지했다. 또 '2010 한국인 필독서' 부문에서는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가 13.1%로 1위였다.

/연합뉴스